

'빛과 소리로 치유하는 명상수행법'

상생선포럼 전북지회 주관 17일 '한민족 역사 전통수행법' 강연회 개최

전통의 도시 한옥의 도시 전주에서 한민족 역사의 전통수행문화를 알리는 명상 수행법이 시연된다.

사단법인 대한사당은 상생선포럼 전북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한민족 1만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전통수행법을 전하는 행사를 가진다.

'빛과 소리로 치유하는 명상수행법'이란 주제로 다가오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전주 시청 대강당에서 전주 시민과 인근 전북도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가 진행된다.

사) 대한사당은 국내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구촌 한국인과 접 세계인 필청 영상 유튜브 조회수에서 1,700만회를 돌파할 정도의 뜨거운 관심을 가지며 한국역사문화의 새로운 현상이 된 '한류문화의 근원 빛의 바람(風流) - 빛꽃(花) 그 실체를 최초로 밝힌다!'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대한사당은 상생선포럼 전북지회와 공동주관해서 진행하며 현 잡실 자생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있는 신민식 한의학 박사가 한국인 건국정신의 주제인 홍익인간 속에 들어있는 전통수행문화 '빛과 소리로 치유하는 명상수행법' 음과 흡수행법을 시민들과 시연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한국인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보고가 담긴 환단고기(桓檀古記) 속에 들어있는 수행법과 한국정신의 원형문화가 담긴 단군세기 서문에서 전하는 나라를 위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린다.

국유형(國有形) 사유혼(史有魂) 나라는 사



전통의 도시 한옥의 도시 전주에서 한민족 역사의 전통수행문화를 알리는 명상 수행법이 시연된다.

탐에게 형제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특히 나라는 역사와 함께 존재하고 사람은 정치와 함께 거둔다.

나라와 역사와 사람과 정치를 열었던 한민족 태고시대의 제왕과 신성수행문화를 열었던 선각자들이 시대를 앞서며 전했던 영성수행법이 있다.

그 내용이 음과 흡수행법인 것이다. 작년 서울에서 진행한 환단고기 북콘서트

11주년기념행사에서는 음과 흡 흡수행법은 배달국 건국 초대황후인 옥족 여왕님이 백일 수행할 때 했던 수행법으로 밝히고 있다.

신민식 병원장이 전하는 수행법은 현대인들이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법이며 영성 수행문화의 근본이며 건강을 지키는 선조들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현대인들이 문명화 된 사회속에 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각종 전염병 최근엔 코로나 질병같은 폐데믹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면역력강화에도 매우 우수한 한민족 전통수행법이 나와야 할 적합한 때에 한국인 모두에게 전통문화의 자긍심과 건강을 지키는 좌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가 한국전통의 도시 한국문화의 상징 전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기를 갈망하게 된 것은 감진년 올해 가을에 전주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된다.

세계속에 나가있는 한국을 사랑하고 성공한 성공업자 5000명이상이 다녀간다.

한옥의 도시 전통의 도시 역사의 고장 전북의 고도 전주를 찾은 제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맞는 전주시민들에게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역사속에 찾고 한류문화의 원형이 한민족 건국정신 한국 고유의 수행원형문화를 알게된다는데 있어서도 매우 의미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참여 예술단체 공모

29일까지 전자우편 신청 접수

전주한벽문화관은 '2024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수수콘)'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8월 제외) 뮤지컬, 댄스, 합창, 클래식, 전통, 판소리,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창작품을 선보였다.

올해는 총 11개(장애1, 비장애10) 단체를 선정, 6월부터 11월까지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실연공간(한벽공연장, 마당창극 전용 아외공연장),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음향 및 조명 오퍼레이터, 안전인력 1명을 선정된 예술인·단체에 지원한다.

또한 장애 예술인·단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 1개 단체를 선정해 실연기회 및 활동 보조 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민 관장은 "지역공연예술인·단체의 창작 욕구를 촉진하고자 공연활성 무대지원 사업을 통해 실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특히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창작품 유통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장애 예술인·단체의 실연기회를 보장해 장애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전주문화재단(www.jcf.or.kr) 누리집 공모사업 또는 전주한벽문화관(www.jt.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mail@jt.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브랜드공연팀(063-280-7006, 7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민 관장은 "지역공연예술인·단체의 창작 욕구를 촉진하고자 공연활성 무대지원 사업을 통해 실연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특히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창작품 유통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역서 귀금속 명장 작품 만나요"

보석박물관, 순회 전시... 내달 17일까지 백경동 명장 작품전 개최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올해 첫 순회 전시로 '익산 귀금속 명장, 백경동 작품전(展)'을 다음달 17일까지 익산역 대합실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귀금속 분야 3호 익산시 명장으로 선정된 백경동 명장을 알리고 작품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백 명장은 1988년 귀금속 공예 분야 입문해 25년 동안 익산에서 귀금속 분야 한길만 성실히 걸어왔다. 익산에 특화된 문화 상품을 제작해 공예품 대중과 백제 문화상품 전국 공모전 수상, 명품인증 3회, 전북 관광 기념품 100선 선정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다.

또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문화 산업 육성 및 주얼리 생산인력 양성과정 직업훈련,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에서 장신구 및 귀금속 강의를 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대표작인 '봉황 지압볼'은 한국 전통의 꽃문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했으며, 순은으로 만든 불에 오방색의 칠보 유약을 올려 구워낸 작품이다.

연꽃과 당초문은 순수함과 건강을 상징하며, 안쪽에 회전하는 봉황볼은 고귀함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봉황 지압볼 외에도 '고요', '기원', '그 사랑' 등 백 명장의 다양한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보석박물관 누리집(jewelmuseum.go.kr)에서 확인하거나 보석박물관(063-853-4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도심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익산역



익산 귀금속 명장 백경동 작품전(展) 포스터

과 협조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역사 이용객분들이 대합실에 머무는 동안 백경동 명장의 작품을 감상하며 '보석의 도시, 익산'을 느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장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귀금속 산업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분야별로 익산시 명장을 선정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

28일까지 꿈다락 문화학교·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령기 아동부터 지역주민(성인)까지 전 연령대 대상의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도민의 문화 예술적 역량을 향상하고, 나아가 도민의 주체적인 성장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대상인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과 지역주민(성인)이 대상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별 도내 27개 내의 문화예술단체·기관을 선정, 단체별



최소 1,6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사업명을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방학 기간에도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평일 운영을 50%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지역주민(성인)을 중심으로 꿈다락 문화학교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자 예산의 정액 지원에서 프로그램의 장르와 내용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으로 변경했다.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단체·기관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나 교육문화팀(063-230-7462, 7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